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월 17일 (제82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자유하라!

나는 이번 신년축복성회를 축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한대로 오랜 시간 춤을 추며 찬양했다. 성도들과 지교회 목사들을 다 단상 앞으로 내려오게 하여 함께 찬양하며 춤을 췄다. 내 목회 31년 동안 국내에서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인도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내 앞으로의 목회는 시편 149편 3절의 말씀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려 한다.

우리는 지금 율법 속에 살지 않는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엄(威嚴)하신 분이지만, 자녀 앞에서는 그야말로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기에 그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자녀로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내가 가장 기뻐할 때는 아들이 내 앞에서 노래하며 재롱을 떨었을 때였다. 그들을 보면 하루의 피곤이 다 사라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컸다고 필요한 말 이상은 안한다. 섭섭하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춤을 추면 기뻐하시고 함께 춤을 추신다. 그래서 악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도 청기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요4:24)는 말씀은 점잖게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는 말씀이다. 기쁜 찬송을 부를 때는 춤을 추고, 심령에서 울리는 것이 있으면 평평 울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계산하지 않는 헌물과 헌신을 드리라는 것이다. 주일 오후 3시 예배는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열린 예배요, 은사 예배로 계속될 것이다. 나는 이에 참여할 동지를 찾고 있다. 그것이 당신이길 바란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라

신년축복성회를 성공리에 마친 지난 11일, 구반포에 위치한 엘루체 컨벤션홀에서 예수중심교단의 모든 목회자, 장로, 직원 및 봉사자들이 모여 교단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始務式), 말 그대로 한 해의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의식이다. 이날 총회장 목사님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예수중심교단의 주역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돈을 못 갚은 자만이 신용불량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 2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자는 노력하는 자입니다. 나는 목회 31년 동안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와 동행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0.1%에 속하는 꼭짓점 인생을 사는 자들은 편안하기를 거부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자들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3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고 남 탓만 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탓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내 탓이라 생각하고, 작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고,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노력보다 무서운 무기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핑계나 변명대지 말고, 노력하여 인생의 신용불량자, 목회의 신용불량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 예수중심교단 시무식(엘루체 컨벤션홀)

좀 다릅니다.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잘 못한 자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나 사업가나 목회자들도 자기 관리에 허술하고, 자기 경영에 나태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에 안주하고 자기 경영에 게으르면 신용이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관리요, 자기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마디로 노력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의 17%를 TV를 보는데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보니 6년 중 1년을 TV 시청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6년마다 1년씩 적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란 먹는 것을 즐기면 내일 암탉을

데 그 세월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보고, 육체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인격도 갖추고 인성도 갖춰야 합니다. 고객만족도는 성장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복학습, 반복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을 해야 무엇이든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됩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반복하고, 성경읽기를 반복하고, 운동을 반복하고, 인격수양을 반복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반복하다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무의식 속에서 이뤄지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것이 된 것이지요.

더불어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들이 되십시오. 깨끗한 자는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됩니다. 이성이나 물질에 당당해야 성도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세요. 그러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30년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외친 예수중심교단 주역들의 얼굴이 빛났다. 그래서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미래는 밝다. 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종들을 대접해준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떡 케이크를 함께 자르며 새해를 다짐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격려하시는 목사님



올해도 예수중심교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7:20)

네 정신을 좀 먹는 것은 포기라는 놈이다

지난여름 3주간의 산상집회를 마치고 기도원 식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조촐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점심때 즈음,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식당에다 음식을 준비해놓았더군요. 비가 와서 그랬을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오치환 장로의 아들 명철이가 있기에 그 아이에게 “이 곳에서 밥을 먹는 게 낫겠니? 아니면 밖에서 먹는 게 낫겠니?” 하고 물었더니 명철이가 비가 오니까 여기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여기서 밥을 먹겠다는 생각이면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포기해야지. 비가 내리니까 더욱 운치가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니? 밖에 지붕이 있는 곳이 있지 않니? 거기서 이것들을 옮기는 것이 귀찮으면 환기도 안 되는 이곳에서 고기 연기 맡으며 먹어야지.” 그랬더니 그제야 다들 깨달았다면서 음식을 옮기고 불판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니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들, 노력하지 않는 자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늘 핑계거리가 보입니다. 그 핑계로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저들의 핑계거리가 다 도전의 이유가 됩니다.

허약한 육체와 가난, 무학(無學), 이것은 핑계거리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전의 이유로 삼아 일어난 자가 있으니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입니다. 그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공보다 성장하고 포기보다 도전하라

더욱 달렸고,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 도전하고 노력하여 13만 명의 계열사 종업원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기업 마쓰시타 전기(파나소닉)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을 좀 먹는 것은 실패나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포기라는 놈이 당신의 정신을, 당신의 삶을 좀 먹는 것입니다. 요즘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취업을 포기하는 3포 세대, 거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포 세대’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다 포기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 포기하는 이유는 지금의 세대가 금수저를 물고 나지 않는 한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생

각이 그러한테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상사 일체유심(一切有心)이라고 옛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즉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다 내 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씨를 뿌렸는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 31년을 멋있으라고 제 목회를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 초기부터 제게 불어 닳친 환난이란 정말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

왔

습 니
다. 오
려 이것을

내지 삼아 뛰었습니다. ‘국내가 안 되면 국외로 나가자, 이참에 세계를 교구삼자’ 했더니 길이 열려 오늘날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생각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여러분을 이만큼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판이라고 하지요? 마음판에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아름다운 씨를 심으세요. 그리고 가꾸세요. 그러나 가꿔도 잡초가 나고, 새에게 쪼일 수도, 두더지나 쥐가 파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때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조금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과수원에서 3년째에나 과실을 거두고, 대나무는 5년이 되도록 지면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0cm

씩 자라 순간 30미터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거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눅6:44).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지요. 진리란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인데,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뿌리면 안 되고, 잘 된다고 뿌리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다리를 절단하는 것과 같고, 자동차에

서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상을 기대 할 수 없

는

것 입
니다. ‘우

달모지재(愚達謨智才)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등급 매기는 말인데, 가장 하위가 재(才)라고 합니다. 자기 재주 하나 믿고 설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위가 지(智)인데, 배운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智)도 모(謨)를 따를 수 없습니다. 모(謨)란 말이나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달(達)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인생을 달관하고 통달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자들보다 한 수 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愚)입니다. 우(愚)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워서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자, 포기를 모르는 자가 인생의 최고등급자라는 것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자는 씨를 뿌린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가 과부의 결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일군 쾌거 아

니겠습니까? 아픈 노임을 착취당하고,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먼저 맞는 아픔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보다 7년 동안 일을 더해서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았지 않습니까?

과테말라 집회를 마치고 귀국 길에 미국의 애틀랜타를 경유했습니다. 시간을 잠시 내어 애틀랜타의 한 골프하우스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놓인 조각상이 마음에 들어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제자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워라

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을 누가 파냐?’면서 안 팔 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제가 가서 계속 물어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물어봤는데 주인이 안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와서 “거봐요, 안 판다잖아요.” 하기에 “내가 안 판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팔 리가 없지.”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다음날 또 그곳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냐고 해서 “어제는 안 팔았어도 오늘은 팔 거야.”라고 했더니 다들 안 파는데 괜한 고생한다고 한 마디씩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그 제자 목사를 통해 팔 것인지 다시 물어보라고 했는데 어제는 안 판다면 주인이 판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요. 그럼요, 어제 안 되던 것도 오늘은 팔 수 있습니다. 백만 눈송이로는 나뭇가지가 꺾이지 않았지만 백만에서 하나 더한 백만 하나의 눈송이로는 꺾일 수 있습니다. 눈 한 송이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2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하여 마침내 그것을 발명해냈고, 링컨도 많은 실패를 인내하여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포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좀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2월 첫주부터
금요일에배가
수요일에배로
변경됩니다**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장소: KBS 88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 하더라도 밭을 사고 캐 내 어 야 만 내 것이 되 는 것입니 다. 2016년

은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어 모두가 성공 하는 한해가 됩시다. 밭에 보화를 찾으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밭에 일하러 가서 땅을 파다보니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1996년 11월, 선을 보고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수중심교회 서울교회 유아유치부 교사였고, 저는 첫 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고 아내는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

침 8시 30분까지 88체육관에 가야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었고, 오후 1시에 점심같이 먹고, 오후 6시나 되어야 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데이트 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우연히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제 혼과 영과 골수를 쫓개어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를 보면 예수 잘 믿는 청년으로 보아 주었습니

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목사님께서는 근심이요 시원치 않은 청년, 예수를 믿는 척만 하는 청년에 불과했었는데 말입니다. 88체육관에서 총회장 목사님이 피를 토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예배를 통해 보화를 발견하고도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지금껏 살아온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 저와 아내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보화가 감추여졌던 밭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 삶에 지치고 너무 곤고할 때가 와서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교회를 예수중심교회로 옮기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와도 같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것이 습관이다’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고, ‘다시 시작하자 30년’ 하고 외치시면 ‘그래, 다시 한 번 해 보는 거야’ 했고,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꾶야한다’ 하시면 다시 목표를 세우고 달려 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기대하면서 드렸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척만 했던 저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저를 종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예수중심교회 오형우 목사

목사에서 선한 목자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3년, 신학교 3학년 때 기도원 호텔 공사를 시작했다. 우리 교단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봉사 안 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다. 당시 건물에 들어가는 대리석이 많이 남은 관계로 소비하기 위해서 돌 식탁을 만들자는 의견에 맞추어 대량의 스텐 파이프를 구입해 만들기 시작했다. 한참 식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다. 골러다니는 스텐파이프

를 집어 드시며 ‘이거 버릴 것이냐’는 질문에 짧아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여 잘 활용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의 종은 고쳐 쓰는 것이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목회도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가르침도 주셨다. 그 말씀에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올랐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늘 혼자였고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늘 외톨이였던 나는 가끔 쓰는 일기장에 마음을 털어 놓는 것이 전부였다.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것이 내 신앙의 전부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귀한 만남을 통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성장시켜주셨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궤하신다’고 하신다. 어린 시절 ‘목사님’이라는 막연했던 꿈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잘 자라도록 가르쳐주신 것이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룻강아지였다. 그러나 믿는 부분이 있어서 포효했던 것처럼 1년이 채 안된 하룻목사이지만 부흥이라는 골리앗 앞에 믿음의 포효를 하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넘어지니까. 대망의 2016년이 밝았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40대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어 50대를 바라보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란 없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누구나 맞이해야 할 숙명이고, 그 뒤 백보좌 심판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요,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이유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뉘인 목사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남원예수중심교회 서권능 목사

인류 최대의 유산, 기도



기도는 인류 최대의 유산이며 교회 최대의 재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은 아니지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가정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박관준 장로)를 교회로 이끌고자 10여년간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5~6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하셨던 것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시작은 항상 똑같습니다. 전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 예수중심교단과 전 기독교인,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가정과 그 밖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며, 특히 아버지 기도를 하실 때는 예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예수 복음으로 뒤엎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총회장 목사님과 아버지의 만남으로 전 세계 비디오 선교에 파장을 일으켰으며, 아버지가 제작한 비디오가 세계 곳곳은 물론 심지어는 북한 땅에도 퍼져있다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며, 기도한 것을 믿으라

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전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저에게 전염이 아닌 상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며,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움직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 그리고 후손들에게 인류 최대의 유산인 기도를 상속시켜주기 위한 것임을 저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1월 4일부터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시작으로 찬양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일 2·3부 찬양 인도와 송과 2교구 담당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위해 하

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온전히 찬양만을 위한 기도를 4시간동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에 배 단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 목관리나 연습이었다면, 저는 스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관리하라’는 말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관리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단 위에서 찬양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밤새 부르짖느라 목이 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단 위에 서면 기적처럼 소리가 납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 중 최고의 유산은 바로 기도입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박주봉 전도사

차선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비디오테이프였습니다. 하나

님을 잘 섬기셨던 어머니는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찾으셔야 했고, 결국 기도하시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중심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중심교회에 참석하시며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가족을 전도하시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1년이 지난 뒤 저와 형의 발걸음을 예수중심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비디오를 보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저는 이렇게 예수중심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초석 목사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 가히 신세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배를 마치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일이 지난 뒤, 그 다음 주에도 어머니와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통성기도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목사님의 모습만 두리번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작스럽게 제 입에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것을 몰랐던 저는 두 시간, 세 시간이 지나도록 무작정 “성령주세요, 방언주세요!”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고, 먼저 회

개를 시키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시 현장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일하던 중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는커녕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청년부 기도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던 중, 십 분을 남겨두고 허리에 찌릿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로 일주일도 안되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저의 모든 일정과 삶은 더욱 예수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악한 마귀의 시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중심교회가 이단이란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그 교회에 가지 마라, 빨리 나와라, 교회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며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 중 한 명은 ‘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교회를 다니냐? 너 정도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으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 어머니의 강요로 인해 몇 군데 교회를 다녀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변화시킨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예수중심교회만이, 그리고 이초석 목사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와보지 않았고 이초석 목사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말하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음도 믿습니다. 만약 제가 다니는 예수중심교회가 잘못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서 빼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고 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심도 맞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도 예수중심교회에서 몸소 체험하며 맞보았습니다. 형편없는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주심을 맞보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예수중심교회에서 이초석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맛을 보게 된 자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성역 30년이 되었을 때 ‘다시 뛰는 30년’을 외치셨고, 일 년이 지난 지금 몸소 실천하시며, 교단의 부흥과 단 한명의 영혼구원에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으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힘쓰고 애써 보려합니다. 제가 예

수중심교회를 통하여, 서울 청년부를 통하여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목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열정과 패기로 마음껏 주의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외적성장과 내적성장을 모두 이루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청년부, 목사님의 사역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청년부, 차선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청년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자부심 갖는 청년부, 마지막 때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청년부, 그래서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청년부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얼마 전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도사님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열정을 잃은 리더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하셨으니 목사님의 열정을 본받아 목사님의 사역을 따르다보면 제가 소원하는 것을 자연히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울교회 청년부 장용준 전도사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어지럼증, 완화시키는 방법은?

58세 직장인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기상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땅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고 속이 울렁거렸으며 이내 구토까지 했다. 혹 뇌졸중은 아닌가 싶어 아내는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었고 응급실에 실려가 몇 가지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김씨는 내이의 중력을 감지하는 ‘이석’이라는 돌이 변성되어 그 부스러기가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 이석

증으로 진단되었다. 휴식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자 일주일 후 증상이 사라졌다. 자신이나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현훈이라고 한다. 문제가 생긴 부위에 따라 말초성 현훈과 중추성 현훈으로 나뉜다. 말초성 현훈으로는 이석증 외에 감기를 앓은 후 전정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전정신경염과 메니에르병이 있다. 메니에르병은 발작성 현훈, 청력감소, 이명, 귀에 무엇이 꽂혀있는 듯한 충만감의 네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중추성 현훈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같은 중추신경에 나

타난 병 때문에 생긴 어지럼증으로 마취술에 취한 듯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겨냥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말할 때에는 발음이 둔해지고 물체가 둘로 보이기도 하며 몸에 편마비나 감각이상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구토가 발생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병력조사와 진찰이 필요하며 뇌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뇌 MRI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

지러움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1.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2.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나며 일어나기 전에 잠시 앉아 있도록 한다. 3. 테니스, 배드민턴, 자전거, 골프 등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을 한다. 4. 실내에서 벽에 고무공을 던지고 받는 운동을 자주 한다. 5. 항상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 무병장수미락하기를 바란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